

마소라 본문 사무엘하 7:1-17에 나타난 다윗의 안식과 두 집에 대한 여호와의 약속

이창엽*

1. 들어가는 말

마틴 노트(Martin Noth)는 여호수아 1:11-15; 23장; 사무엘상 12장; 열왕기상 8:14-61 등을 신명기적 역사를 이해하는 주요한 본문으로 보았다.¹⁾ 매카시(Dennis J. McCarthy)가 이에 덧붙이기를 원했던 본문은 사무엘하 7장이었다.²⁾ 사무엘하 7장은 가장 논쟁적이면서 많은 학자들이 다루었던 본문이기도 하다.³⁾ 학자들은 자신들의 신명기적 편집에 대한 입장에 따라 사무엘하 7장의 세부 본문을 서로 다른 시기의 산물로 보았다. 사무엘하 7장에 대한 연구는 여러 단행본으로 출판될 정도로 방대하다.⁴⁾

본 논문은 사무엘하 7장에서 다룰 수 있는 많은 주제 가운데 사무엘하

* University of Sheffield에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안양대학교 구약학 교수. changyoplee@anyang.ac.kr.

1) Martin Noth, *The Deuteronomistic History* (Sheffield: JSOT Press, 1981), 5-6.

2) Dennis J. McCarthy, "II Samuel 7 and the Structure of the Deuteronomistic History", *JBL* 84 (1965), 131.

3) P. Kyle McCarter, *2 Samuel* (Garden City: Doubleday & Company, Inc., 1984), 210-220.

4) Gwinlym H. Jones, *The Nathan Narratives*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0); Lyle Eslinger, *House of God or House of David: The Rhetoric of 2 Samuel 7*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4); D. F. Murray, *Divine Prerogative and Royal Pretension: Pragmatics, Poetics and Polemics in a Narrative Sequence about David (2 Samuel 5.17-7.29)*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8); William M. Schniedewind, *Society and The Promise to David: The Reception History of 2 Samuel 7:1-17* (New York;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Michael Avioz, *Nathan's Oracle (2 Samuel 7) and Its Interpreters* (Peter Lang: Bern, 2005).

7:1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마소라 본문(이하 MT) 사무엘하 7:9b-11a의 시제에 대한 주제를 다루어 보고자 한다. 먼저 MT 사무엘하 7장과 다른 읽기를 제공하는 칠십인역(이하 LXX) 사무엘하 7장과의 비교를 통해 MT 사무엘하 7:1b에 대해 살피고자 한다. 이어서 사무엘하 7:1b와 동일한 주제를 다루는 11a절의 주위의 구절인 9b-11a절의 시제와 관련하여 본문을 살핀다. 이를 바탕으로 MT 사무엘하 7:1-16의 핵심 논지가 무엇인지 살피고자 한다. 위의 논의를 합하여 현재 우리가 가진 최종 형태의 본문인 MT 사무엘하 7장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한 조그만 실마리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마소라 본문 사무엘하 7:1b에 대한 해석과 칠십인역 사무엘하 7:1b와의 차이점

사무엘하 7:1은 “왕은 그의 집에 거주하고 그리고 여호와와는 주위로부터 그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그에게 안식(평안/평강)을 주셨다”⁵⁾라고 말한다.⁶⁾ MT 사무엘하 7:1 본문은 완료 형태의 동사를 사용하여 안식은 이미 다윗에게 주어졌다고 말한다.⁷⁾ 한편, 병행 본문인 LXX 사무엘하 7:1b는 MT 사무엘하 7:1b에 언급된 יהוה הנהילו κύριος κατεκληρόμησεν αὐτὸν으로 소개한다. 이를 히브리어로 바꾸면 יהוה הנהילו가 된다.⁸⁾ LXX 사무엘하 7:1b의

5) 루키안 본문은 MT 본문과 같이 “그에게 안식을 주셨다”로 소개한다(N. F. Marcos and J. R. Busto Saiz, *El texto antioqueno de la Biblia griega I, 1-2 Samuel* [Madrid: CSIC, 1989], 107; A. E. Brooke and N. Mclean, *The Old Testament in Greek*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17], 126-127; Alfred Ralphs, *Septuaginta*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1979], 577). 카이게 개정본과 루키안/안디옥 본문의 특징에 대한 것은 김정훈, “칠십인역 사무엘-열왕기서의 본문 형태와 그 역사”, 『Canon & Culture』 5 (2009), 181-210을 참조하라.

6) 『개역개정』은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로 번역한다. 히필 형태의 הנהילו는 아사의 시대에 평안을 주셨고(대하 15:15), 여호사밧의 시대에 여호와께서 평강을 주셨다(대하 20:30)로 사용된다; Dennis J. McCarthy, “II Samuel 7 and the Structure of the Deuteronomistic History”, 132; Emanuel Tov, *The Text-Critical Use of the Septuagint in Biblical Research* (Winona Lake: Eisenbrauns, 2015), 157.

7) MT 사무엘서는 안식이 다윗에게 임했음을 선언하는 반면에 MT 대상 17:1은 사무엘하 7:1b에 대한 언급이 없고, LXX 삼하 7:1b는 이와 다르다. 김진수는 다윗이 얻은 것은 블레셋을 제압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안정이었고, 삼하 7:1b의 안식은 상대적이라고 본다. 그는 10-11절에 근거하여 참된 안식은 미래의 일이라고 이해한다(김진수, “설교를 위한 구약 내러티브 본문 주해: 삼상 7:3-17; 삼하 7:1-29”, 『헤르메네이아 투데이』 51 [2011], 129-130).

8) 마소라 본문과 칠십인역 사이에는 음위 전환(metathesis)이 결과적으로 나타난다. 삼하 7장과 관련하여 마소라 본문과 바티칸 사본 등의 칠십인역 본문 사이에 어떤 본문이 원본인지를 명확히 규정할 수 없다. 필자는 삼하 7장은 마소라 본문의 케티브를 따라 읽을 때 MT 삼

의미는 “여호와가 그에게 기업으로 주었다”이다.⁹⁾ 이처럼 LXX 사무엘하 7:1b는 안식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여호와가 다윗에게 기업을 주었다고 말한다. LXX 사무엘하 7장을 읽을 경우, 다윗에게 주어질 안식은 LXX 사무엘하 7:1b가 아니라 LXX 사무엘하 7:11a에 가서야 언급된다. 그러므로 LXX 본문은 다윗이 누릴 안식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에 다윗에게 주어진다고 소개한다.

다윗에게 주어지는 안식이 미래적인 안식이라는 LXX 사무엘하 7장 본문의 읽기를 따른다면 MT 사무엘하 7:1b와 11a절은 서로 상충되는 것처럼 보인다. 이와 같은 난점에 대해 역대상 17:1이 사무엘하 7:1의 짧은 형태로 된 원본을 보존하고 있다고 믿는 맥카터는, MT 사무엘하 7:1b의 “내가 너에게 안식을 준다”라는 어구가 역대기 역사가 기록된 후에 그리고 구 그리스어 번역 이전에 사무엘하 7:1b에 잘못 배치된 것으로 이해하여, 부차적인 부분이 덧붙여진 것으로 추정한다.¹⁰⁾

만약 MT 사무엘하 7:1b와 다른 내용을 말하는 LXX 사무엘하 7:1이 제시하는 κύριος κατεκληρόμησεν αὐτὸν(יהוה הנהיל)을 받아들이는 입장을 가진다면, LXX 사무엘하 7:1b의 내용은 사무엘하 7:11a와 상치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LXX 사무엘하 7장의 읽기에 의하면 안식은 현재 다윗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미래에 주어진다고 본다. 안식은 미래에 다윗에게 주어지므로 다윗은 안식의 사람이 아니라는 주장까지 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적 입장은 나아가, 다윗의 시대는 안식의 시대가 아니었고 안식은

하 7:1b와 11a절 사이의 긴장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김정훈은 마소라 본문 케티브/케레 전통의 본문 읽기와 관련된 연구를 통해 기원전 1세기-기원후 1세기 헬레니즘 유대주의 시대의 구약 성경 본문의 다중성(multiplicity)과 유동성(flexibility)을 확인할 수 있었고, 사무엘하 본문으로부터 시작하여 구약 성경 본문 전체로 확대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김정훈, “마소라 본문 케티브/케레 전통의 본문비평적 성격 고찰-자음 중복과 중자 탈락, 유사 자음 차이의 보기를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43 [2018], 184-208).

9) 신 21:16에 동일한 형태가 나온다.

10) P. Kyle McCarter, *2 Samuel*, 191. 맥켄지(Steven L. McKenzie)의 논의도 삼하 7:1b는 이차적인 구절로 이해한다. 그는 삼하 7:1b를 제거하면 본문의 내용 전개는 자연스럽게 된다고 본다. 그는 결국에는 1절을 제거해야 신명기적 관점에 잘 어울린다는 맥카터(P. Kyle McCarter)의 주장을 받아들인 편이다. 이 입장을 따를 경우 안식은 신명기적인데, 삼하 7:1b의 주장은 신명기적인 것과는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맥카터, 맥켄지 모두 이 부분에는 동의하는 편이다(Steven L. McKenzie, “Why Didn’t David Build the Temple? The History of A Biblical Tradition”, M. P. Graham, R. R. Marrs, and S. L. McKenzie, eds., *Worship and the Hebrew Bible: Essays in Honor of John T. Willis*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9], 212; Steven L. McKenzie, “The Typology of the Davidic Covenant”, J. Andrew Dearman and M. Patrick Graham, eds., *The Land that I Will Show You: Essays on the History and Archaeology of the Ancient Near East in Honour of J. Maxwell Miller*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2001], 173-174).

다윗에게 주어지지 않았으므로, 성전을 지을 수 없었던 것에 대해 근거를 제시하게 된다. 성전은 안식의 사람이 지을 수 있기에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그의 아들이 된다. 이처럼 다윗은 안식의 사람이 아니라고 보는 해석은 열왕기상 5:3-4와 역대상 17:1의 본문과 어울리게 된다. 역대기 저자는 한결음 더 나아가 대적과의 전쟁이 없는 상황이 되고 안식의 사람(a man of rest)만이 성전을 지을 수 있다고 말한다.¹¹⁾

하지만 이러한 해석적 입장은 MT 사무엘하 7:1b에 언급된 ‘다윗이 안식을 누렸다(MT 삼하 7:1)’는 표현을 부차적인 본문으로 치부한 결과 논리적으로 뒤따라 나오는 해석이다. 역대기 저자가 역대상 17:1에서 MT 사무엘하 7:1b에 언급된 ‘다윗이 안식을 누렸다(MT 삼하 7:1)’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생략했는지 아니면 역대상 17:1의 저본(Vorlage)은 원래 없는지 나누어 생각해 볼 필요는 있지만, 이는 증명할 수 없다. 역대상 17장과 사무엘하 7장은 동일 사건을 다루지만 우리는 MT 사무엘하 7장의 핵심 논지를 이해하기 위해 역대상 17장을 비롯하여 다양한 본문과 비교해 보는 방법을 택하기보다는 MT 사무엘하 7:1b는 엄연히 본문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사무엘하 7장을 읽어야 한다. MT 사무엘하 7:1b의 현재 본문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MT 사무엘하 7:1b와 11절의 내용이 지닌 긴장 관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사무엘하 7:5-6에 언급된 나단 선지자를 통해 전달된 여호와와 말씀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한다.

3. 다윗의 집을 세우시는 여호와와 여호와와 집을 지을 다윗의 씨

사무엘하 7:5b-7은 다윗의 성전 건축에 대해 여호와가 거절하는 이유를 소개한다. 우리는 “네가 나를 위하여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삼하 7:5b)는 질문의 의도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¹²⁾ 이 문장에서 의문사 𐤑는 부정적인 대답을 기대하는 것을 넘어서서 수사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놀라고 화가 나서 거절하는 뜻으로 사용된다.¹³⁾ 의문사 𐤑와 결합된 단어가 명사 형태인데, 맥카터는 이를 동사 형태인 부정사 절대형(𐤑𐤍)으로 이해하고,

11) Sara Japhet, *I & II Chronicles: A Commentary* (Louisville: Westminster/John Knox Press, 1993), 397.

12) 대상 17:4는 의문문이 아니라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라는 부정 서술문으로 소개한다.

13) Wilhelm Gesenius, *Gesenius' Hebrew Grammar* (Mineola: Dover Publications, 2006), §150d. 의문사 𐤑는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했는가”(삼하 7:7b)에도 사용된다.

부정사 절대형에 의문사 𐤒가 연결되어 있다고 제안한다.¹⁴⁾ 이러한 읽기는 LXX의 직역과 일치한다(εἰ λαλῶν ἐλάλησα). 부정사 절대형에 의문사 𐤒가 연결되었다고 본다면 “내가 참으로 말했는가”라고 번역할 수 있다. 그는 여호와의 성전 건축 거부 의도가 더욱 분명히 드러났다고 이해한다. 이렇게 읽을 때 성전 건축에 대한 다윗의 제안은 필요 이상으로 지나친 것이다. 여호와는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말하지 않았다. 한때 실로에 있었던 여호와의 성전은 하나님의 궤가 머무르는 일시적인 장소였다(삼상 1:9).¹⁵⁾ 다윗의 성전 건축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MT 사무엘하 7장의 본문은 두 번에 걸쳐 의문사 𐤒를 사용하여 여호와의 강한 거절을 의미한다.

여호와가 어떤 의미에서 다윗의 제안을 거절하셨는가? 만약 성전 건축의 주도권이 다윗이 아니라 여호와께 있어야 한다고 가정한다면, 다윗이 먼저 성전 건축을 제안한 것을 거절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¹⁶⁾ 다윗이 아닌 여호와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 주는 어구가 5절에 사용된 2인칭 남성 단수 인칭대명사이다.¹⁷⁾ 여호와는 직접 어느 사사에게 말하지 않았음을 밝힌다(삼하 7:7).¹⁸⁾ 성전 건축의 주도권은 다윗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있다. 여호와가 보기에 먼저 지어야 하는 집은 여호와의 집이 아니라 다윗의 집임을 두 번째 여호와의 말씀에서 분명하게 밝힌다(삼하 7:11b). 그러므로 성전 건축에 대한 첫 번째 거절 이유는 주도권 문제였다. 하지만 주도권 쟁점에 대해 다윗에게 성전 건축과 관련하여 결격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¹⁹⁾

첫 번째 여호와의 말씀(5-7절) 안에서 다윗의 성전 건축을 거절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호와가 고정된 형태의 성전을 짓는 것을 도대체 원하지 않는 것인가? 아니면 여호와가 어느 한 곳에 갇히기를 원하지 않으시는가? 아

14) P. Kyle McCarter, *2 Samuel*, 227.

15) Steven L. Mckenzie, “Why Didn’t David Build the Temple?”, 214.

16) 강정주는 삼하 7장은 여호와께서 다윗 왕조를 선택하신 것과 성전(건축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우선권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고 보았다(강정주, “시편 132편과 다윗 언약”, 『개신논집』 6 [2006], 74).

17) 윤동녕, “신앗시리아의 왕을 위한 예언 연구”, 『Canon & Culture』 5 (2011), 205 참조.

18) F. M. Cross, *Canaanite Myth and Hebrew Epic: Essays in the History of the Religion of Israel*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3), 244.

19) 반 시터스(John Van Seters)는 삼하 7:5의 의문문을 고소(accusation)로 해석할 수 없고, 그 의미가 확정적이지 않아 다중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본다. 여호와의 질문은 반성전적(anti-temple)이지 않다(John Van Seters, *In Search of History: Historiography in the Ancient World and the Origins of Biblical History* [New Haven;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983], 273-274).

니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 목적이 왕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한다고 보고 이를 거절하는 것인가? 다윗은 이제 옮겨 다니지 않도록 자신의 궁을 차지하게 되었지만 다윗의 시대는 완전한 정착의 시대가 아니라 옮겨 다니는 이동의 시대이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 없는가? 사무엘하 7:5b-7은 여호와가 성전 건축을 거절하는 이유를 소개한다. 여호와가 성전 건축을 반대하는 이유는 고정된 집(fixed house)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의미이다. 다윗에게 결점이 있기 때문에 다윗이 성전을 지을 수 없는 게 아니다. 여호와는 한 곳에 계속적으로 거주하는 공간을 원하지 않으시고, 임시 처소로서 옮겨 다니는 것을 원하신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이해를 따르면 **שב**는 계속적 거주를 의미하고(삼하 7:5), **שכן**은 임시적 머무름으로 이해할 수 있다(삼하 7:6).²⁰ 이 경우 고정된 공간으로서의 성전은 금지된다. 성전 건축의 거절 이유는 여호와의 임시적 처소로서의 성막을 강조하였기 때문이다.²¹ 사무엘하 7:5b-7은 **שב**와 **החלה**라는 서로 대조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여호와의 임시적 거처인 성막을 강조한다. 첫 번째 다윗에게 주어진 말씀(삼하 7:5b-7)에서 우리는, 다윗이 아니라 여호와가 주도권을 가져야 함과 여호와의 임시적인 거처로서의 장막, 성막을 강조하였다.

이제 다윗에게 두 번째 주어지는 말씀은 8-16절이다. 우리는 두 번째 다윗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라는 좀 더 큰 틀 안에서 첫 번째 주어진 말씀을 이해해야 한다. 나단을 통해 주어지는 여호와의 두 번째 말씀을 담고 있는 8절은 여호와의 첫 번째 말씀인 5b-7절과는 달리 새로운 내용을 소개한다.²² 8절에는 여호와가 주도권을 가지고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는 은혜로운 과거의 일들을 말한다.²³ 먼저 두 번째 말씀의 1부인 8-11a절에서 여호와가 다윗에게 이미

20) Hans Wilhelm Hertzberg, *I & II Samuel*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4), 285, 287.

21) 시 132:5는 다윗의 맹세를 소개하면서 다윗이 성막을 제공했다고 기록한다. F. M. Cross, *Canaanite Myth and Hebrew Epic*, 244 참조.

22) 크로스(F. M. Cross)는 삼하 7:8이 새로운 출발이라고 말한다(Ibid., 241. n. 96, 247).

23) 인칭대명사 ‘너(남성)’를 사용하여 어떻게 다윗이 여호와에게 도움을 주는 자가 될 수 있는가 질문한다. LXX는 의문문이 아닌 부정어(ού)를 사용한다. 여호와가 다윗에게 도움을 주는 후원자이다.

앗수르와 신 바벨론 제국의 건축 기사에는 왕이 주도권을 가지고 건축을 시작하고 이어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허락을 받게 됨을 소개한다. 카펠루드(Arvid S. Kapelrud)와 바인펠트(M. Weinfeld)는 왕상 3장에 언급된 솔로몬의 기브온에서 꾸민 꿈에 관한 이야기는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 건축과 관련하여 여호와와 허락을 얻는 것이 원래 꿈의 내용이었다는 가설을 주장한다(Arvid S. Kapelrud, “Temple Building: A Task for Gods and Kings”, *Orientalia* 32 [1963], 61; M. Weinfeld, *Deuteronomy and the Deuteronomistic School* [Oxford: Clarendon Press, 1972], 248; Victor Hurowitz, *I Have Built You an Exalted House: Temple Building in Light of Mesopotamian and Northwest Semitic Writings*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2], 165 참조). 카펠루드는 왕상 3장과 5-9장의 현재의 본문 형태로는 서

과거에 행했던 것을 소개한다. 이어 두 번째 말씀의 2부가 시작되는 부분은 11b절이다. 11b절에서 “이르노니”(히필형 **נני**)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미래에 여호와가 다윗에게 행하실 것을 말한다. 다윗을 주권자(**מלך** king-elect)로 삼은 여호와가 다윗에게 말한다. 여호와가 다윗을 위하여 다윗의 집을 짓겠다고 한다(삼하 7:11b). 11b-16절은 다윗의 집, 즉 다윗 왕조에 대한 약속을 말한다. 다윗의 나라(삼하 7:16)뿐 아니라 다윗의 아들의 후손과 그의 나라의 보좌가 영원히 견고할 것을 말한다(삼하 7:13). 12절에는 후손에 대한 약속을 언급한다. 이 가운데 오직 성전에 대한 언급은 13a절에만 있다. 다윗이 아닌 다윗의 아들,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집을 건축할 것이다(삼하 7:13a).²⁴⁾ 한편, 다윗의 감사 기도를 담고 있는 18-29절에는 성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고, 다윗의 집을 중점적으로 언급한다(삼하 7:25, 26, 27, 29).

사무엘하 7:13a의 내용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본문의 의미가 달라진다. 우선 사무엘하 7:13a가 없는 경우에는 다윗 자신은 결코 비난의 대상이 아니다. 사무엘하 7:13a가 없는 사무엘하 7:8-16 본문의 핵심 내용은 성전 건축과 연관되지 않고 다윗 왕조의 미래와만 연관된다.²⁵⁾ 다윗 왕조는 견고한 집 혹은 든든한 집(**בית נאמן**)이 된다.²⁶⁾ 사무엘하 7:15에 언급된 사울과는 불연속성이 있고 다윗이 왕조의 창시자가 된다. 사무엘하 7:13a가 없는 사무엘하 7장은 다윗의 집, 즉 다윗 왕조만을 강조한다.

사무엘하 7:13a를 포함하는 현재의 MT 사무엘하 7:8-16 본문 전체는 여호와의 집이 영원히 고정되지 않아야 함을 강조하는 사무엘하 7:5b-7 본문과 상치되지 않는다. 얼핏 보면 사무엘하 7:7과 13절은 서로 이율배반(irony)으로 보인다. 하지만 주도권을 가진 여호와가 먼저 다윗의 집을 짓겠다고 한 뒤(삼하 7:11) 바로 이어 다윗 언약의 당사자에게 요구되는 언약의

로 연관됨이 명확하지 않지만, 왕상 9장에서 여호와가 기브온과 새로운 성전에 나타나심이 서로 연관되고, 솔로몬의 기브온 방문을 성전 건축과 연관이 있었다고 주장한다(Arvid S. Kapelrud, “Temple Building”, 61).

24) 여호와의 안식이 언급된 구절로 왕상 8:27; 시 132:8; 사 66:1이 있다. 시 132:8은 여호와의 안식의 처소를 긍정적으로 소개하고, 왕상 8:27과 사 66:1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은 여호와의 안식처가 될 수 없다고 본다. 하지만 왕상 8장에서 솔로몬은 여호와의 이름이 있을 곳은 성전임을 밝힌다.

25) Leonhard Rost, *The Succession to the Throne of David* (Sheffield: Almond, 1982), 42.

26) Leonhard Rost, *Succession to the Throne of David*, 42. **בית נאמן**은 견고한 집(삼상 2:35; 왕상 11:38), 든든한 집(삼상 25:28) 등의 세 번의 용례가 있다. ‘충실한’, ‘견고한’의 의미를 가진 **נאמן**은 다윗에게 사용된다(삼상 13:14; 25:28; 삼하 7:16; 행 13:22). 삼상 2:35에서 **נאמן**은 제사장에게 사용되었지만, 삼하 7:16에는 왕의 가문에 사용된다. 그러므로 사무엘에서 제사장과 왕의 역할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다(David Toshio Tsumura, *The First Book of Samuel* [Grand Rapids: Eerdmans, 2007], 170).

조항 가운데 하나인 다윗의 아들이 여호와와 집을 지어야 함을 말한다. 이는 언약의 당사자에게도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을 있음을 밝히는 것이다. 사무엘하 7:13a가 있음으로 인해 사무엘하 7장 전체는 결국 성전 건축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여호와와 뜻은 아님을 분명히 보여 준다. 성전 건축에 대한 조건이 충족되면 성전은 건축할 수 있다. 사무엘하 7:13a가 있음으로 인해 사무엘하 7:5b-7에서 말한 내용인 고정된 성전을 지을 수 있으나 없느냐라는 쟁점에서 성전을 지을 사람이 누구인지 그 정체에 대한 논점을 또한 드러낸다. 사무엘하 7:13a는 지을 사람이 누구인지를 강조한다.²⁷⁾ 하지만 MT 사무엘하 7장을 포함한 사무엘서는 그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는다.

MT 사무엘하 7장의 초반부의 쟁점은 여호와가 영원히 지상에 고정된 집의 형태로서의 여호와와 거처를 허락하시는가에 대한 것이었다. 하지만 13a절로 넘어오면서 여호와가 아니라 여호와와 이름을 위한 집, 여호와와 실제적인 거처가 아니라 여호와와 이름을 위한 집을 말한다. 사무엘하 7:13에 소개되는 집은 여호와와 지속적인 거처로서의 집이 아니라 여호와와 이름을 위한 집으로 그 성격이 바뀐다고 할 수 있다.²⁸⁾ 사무엘하 7장은 집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여호와와 집, 다윗의 집 그 두 집을 짓고 세울 것에 초점이 있다. 사무엘하 7장 자체는 다윗이 여호와와 집인 성전을 지을 자가 아님을 명확히 밝힌다. MT 사무엘하 7장은 다윗에게 결격 사유가 있다는 것을 말하기보다는 다윗의 뒤를 이을 그의 아들이 여호와와 집을 지을 것을 말할 뿐이다. 사무엘하 7장 본문은 후손에 대한 집합적 약속으로 말미암아 한 아들로 그 범위를 좁혀 그의 실제 이름이 언급되지 않고 그가 성전을 짓게 될 것을 말한다. 사무엘하 7장과 병행 본문인 역대상 17장도 이 아들이 가져야 할,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자격 조건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사무엘하 7장 자체는 여호와와 집을 지을 자의 자격 조건 자체를 말하지 않는다. 이와는 달리 열왕기상 5:3-4; 역대상 22:8-9; 28:3은 여호와와 집을 지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을 말한다. 사무엘하 7장은 집 자체(여호와와 집, 다윗의 집)가 주된 관심사이었는데, 열왕기상 5장; 역대상 22장; 28장은 여호와와 집을 지을 수 있는 건축자의 자격을 말하는 것으로 그 주된 관심이 바뀐다. 이미 다윗의 집은 지어졌고, 열왕기상 5장; 역대상 22장; 28장과 같은 본문에는 누가 성전을 지을 것인가라는 핵심이 부각된다. 열왕기상 5장; 역

27) 헤르츠버거(Hans Wilhelm Hertzberg)는 삼하 7:13a는 본문의 발전과정 가운데 나중 단계에 속한다고 본다(Hans Wilhelm Hertzberg, *I & II Samuel*, 287).

28) 슈니드윈드(William M. Schniedewind)는 삼하 7:13a를 제외한 다른 구절들은 여호와와 실제적인 거주 장소로서의 성전에 대해 명시적으로든지 암시적으로 언급한다고 주장한다(William M. Schniedewind, *Society and The Promise to David*, 33).

대상 22장; 28장에 가서야 다윗이 성전을 지을 수 없는 이유를 더욱 구체적으로 밝혀 성전 건축자의 자격을 논한다.

다윗이 성전을 지을 수 없는 이유와 관련하여 열왕기상 5:3-4는 다윗이 처한 상황 즉 다윗에게는 태평(안식)이 없었다고 말한다. 열왕기상 5:3-4는 다윗 개인에게 결격 사유가 있음을 말하기보다는 다윗이 처한 상황이 성전을 지을 수 없는 때였다고 본다. 하지만 역대상 22:8-9는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을 하였기에 여호와의 집을 지을 수 없다고 다윗 개인에게 있는 결격 사유를 명확히 밝힌다. 역대상 28:3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다윗을 전쟁의 사람으로 규정한다.²⁹⁾

사무엘하 7장은 열왕기상 5장; 역대상 22장; 28장과는 달리 다윗이 성전을 지을 수 없다고 말하지만, 그 결격 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는다. 열왕기상 5장; 역대상 22장; 28장은 이를 명확하게 소개한다. MT 사무엘하 7장 최종 본문은 여호와의 살 거처인 성전을 짓는 것이 처음에 나단을 통해 주어진 여호와의 말씀에는 강하게 부정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두 번째 주어진 여호와의 말씀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집의 건축은 결국 승인된다. 그러므로 사무엘하 7장에 소개된 다윗의 약속에서 중심이 되는 내용은 성전이 아니라 다윗의 집 즉 다윗 왕조이다.

4. 마소라 본문 사무엘하 7:9b-11a의 시제: 미래적 예언인가 혹은 과거에 이루어진 사건들을 말하는가?

우리는 위의 단락에서 사무엘하 7:5-7과 8-16절에 각각 언급된 여호와의 말씀 중심 내용을 살펴보았다. MT 사무엘하 7:1b의 의미를 현재의 본문대로 읽을 때 MT 사무엘하 7:1b와 어긋날 수 있는 11a절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해 다른 읽기를 제시하고자 한다. 사무엘서 저자는 MT 사무엘하 7:1b에 완료 형태의 동사를 사용하여 안식이 다윗에게 이미 주어졌다고 말한다. 한편, 이와 일치하지 않는 듯 보이는 사무엘하 7:11a를 미래에

29) 켈리(Brian E. Kelly)는 대상 22:8; 28:3에 언급되는 크게 전쟁을 한 것은 대상 18-20장을 가리키고, 땅에 피를 많이 흘린 것은 대상 21장에 언급된 다윗의 행위를 가리킨다고 주장한다.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을 한 것은 동의 어구가 아니라 서로 다른 두 개의 서로 다른 사건을 가리킨다. 그는 대상 22:8에 이 두 사건으로 인해 다윗은 성전을 지을 수 없는 이유로 이해한다. 켈리는 어떤 성격의 성전이 아니라 성전을 지을 수 없는 자의 자격을 다룬다. Brian E. Kelly, "David's Disqualification in 1 Chronicles 22.8: A Response to Piet B. Dirksen", *JSOT* 80 (1998), 59.

주어질 약속으로 읽는 전통적인 입장을 지지하는 자들이 번역한 『개역개정』은 9b절부터 11b절에 이르는 구절에 언급되는 완료형 형태를 미래에 성취될 것으로 본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 읽으면 8b-9a절은 과거로 읽고, 9b-11b절은 다윗에게 주어지는 미래의 약속으로 이해한다.

사무엘하 7:1a와 연관된 11a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MT 사무엘하 7:8b-11a 본문보다 LXX 본문을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LXX 사무엘하 7:9b는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 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라고 말하는 『개역개정』의 번역과는 달리 “땅 위에 있는 위대한 자들의 이름 같이 너를 위대하게 만들었다”라고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소개한다. LXX 사무엘하 7:9 하반은 필자의 MT 본문 번역과 일치한다. 하지만 LXX 본문은 10절부터 16절에 이르기까지 전부 미래 형태의 동사를 사용하여 그 모든 내용이 훗날 이루어질 것으로 소개한다.

우리는 MT 사무엘하 7:9b-11a에 사용되는 동사 형태와 그 의미가 비슷한 용례를 같은 사무엘서 안에서 찾을 수 있다. 두 성경구절 모두 과거에 일어난 사건들에 대한 묘사로 읽을 수 있다. 사무엘상 17:35-36a에 언급된 동사가 사무엘하 7:9-11과 유사하다. 사무엘상 17:35-36a에서 단순 바브만 사용되지 않고 바브 연속법을 문장의 중간에 한 번 사용한다. 사무엘상 17:35-36a를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내가 따라가서(단순 바브) 그리고 그것을 치고(단순 바브) 그리고 그 입에서 건져 내었다(단순 바브) 그리고 그것이 나를 대항하여 일어나(바브 연속법) 그리고 내가 그 수염을 잡고(단순 바브) 그리고 그것을 쳤고(단순 바브) 그리고 그것을 죽였나이다(단순 바브) 그리고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단순 바브)’.

사무엘상 17:35-36a에서 다윗이 먼저 선제공격한 경우를 먼저 소개한다. 이어 짐승이 다윗을 위협하는 것을 뒤이어 소개한다. MT 사무엘서 저자는 짐승이 다윗을 공격했다는 사실을 소개하는 두 번째 내용에 바브 연속법을 사용하여 새로운 내용이 시작됨을 알려 준다. 저자는 바브 연속법을 사용하여 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를 해 둔 것이다. 사무엘상 17:35-36a에서 저자는 단순 바브만을 사용하여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단순히 나열하지 않는다. 사무엘서 저자는 사건을 평면적으로 묘사하지 않고 두 가지 서로 다른 성격의 사건이 일어났음을 알려 주고자 바브 연속법이란 외형적 표지를 사용했다. 사무엘상 17:35-36a에 소개되는 내용을 따르면 다윗이 먼저 사자나 곰을 따라가서 치고 그 입에서 양을 구해 내었다. 맹수는 보통은 네 발로 이동하지만, 공격 시에는 별떡 일어나서 사람을 공격한다. 저자는 맹수가 다윗을 공격하기 위해 그의 몸을 일으켰지만, 다윗이 짐승의 수염을 잡고 쳐서 죽였다고 말한다. 이처럼 단순 바브만을 사용하지 않고 과거에 일어났지만 새로운 내용을 시작을 알리고자 바브 연속법을 사용하고 있음

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단순 바브와 바브 연속법을 혼용하여 과거의 사건을 역동적으로 묘사할 수 있다.

비록 사무엘상 17:36이 사무엘하 7:9-11b의 시제에 대해 정확적 증거만 제시하고 있지만, 사무엘상 17:36처럼 사무엘하 7:9b-11에도 단순 바브 형태가 여러 번 사용되고 있는 본문의 경우에는 특별히 저자의 수사적 의도를 고려해서 내용을 이해해야 한다. 사무엘상 17:35-36a와 유사하게 사무엘하 7:8b-11a는 여호와께서 과거에 다윗에게 행했던 사건들을 연속적으로 소개한다. 이 구절들의 내용은 다윗의 왕이 되기 전의 과정을 보여 준다. 여호와는 목자인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מֶלֶךְ nagid, king-elect)로 삼았고,³⁰⁾ 이어 다윗의 군사적 승리를 언급한다.³¹⁾ ‘나기드’인 다윗은 전쟁을 치르는 용사로, 그가 과거에 이룬 업적을 소개하는 데 강조점을 두고 말하는 부분은 8b-11a절이다.³²⁾ 이어 11b절부터는 이미 안식을 누리고 있는 다윗에게 여호와는 앞으로 계속 존재하게 될 다윗의 집에 대해 말한다.

8b-11절에 이르는 여호와의 두 번째 말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7:8b 내가 너를 주권자로 취했다(완료형)
- 7:9a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바브 연속법)
너는 갔다(완료형)
- 9b 그리고 나는 너의 적들을 멸하였다(잘랐다, 바브 연속법)
- 9c 그리고 나는 너를 위해 큰 이름을 만들었다(단순 바브)³³⁾
- 7:10a 그리고 나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한 장소를 정했다(단순 바브)
- 10b 그리고 나는 그를 심었다(단순 바브)³⁴⁾ 그리고 그는 거주했다(단순 바브)

30) Diana Edelman, *King Saul in the Historiography of Judah*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1), 44, 47-48, 94를 참조하라.

31) 반 시터스는 삼하 7:7, 11에 언급된 ‘명령하다’라는 동사는 다윗을 주권자로 임명할 때에도 언급되었음을 강조한다(삼상 13:14; 25:30). John Van Seters, *In Search of History*, 276.

32) 나기드에 대한 논의는 소형근과 이궁재의 자세한 논의를 참조하라(소형근, “히브리어 ‘나기드’(מֶלֶךְ) 번역에 대한 제언”, 『성경원문연구』 34 [2014], 289-293; 이궁재, “목자 제왕 이데올로기 연구를 통한 사무엘하 5:2하의 번역 제언”, 『성경원문연구』 43 [2018], 87-90). 이궁재는 나기드를 ‘왕위 계승자’로 이해하기보다는 ‘목자’로 이해한다(이궁재, “목자 제왕 이데올로기 연구를 통한 사무엘하 5:2하의 번역 제언”, 90.).

33) 왈키(Bruce K. Waltke)와 오코너(M. O'Connor)는 단순 바브의 형태 동사의 강제는 마지막 음절 앞의 음절에 있다고 본다(Bruce K. Waltke and M. O'Connor, *An Introduction to Biblical Hebrew Syntax* [Winona Lake: Eisenbrauns, 1990], 520); Wilhelm Gesenius, *Gesenius' Hebrew Grammar*, §112 pp-tt 참조. 필자의 입장과는 달리 삼하 7:9b-11a에 언급된 동사를 미래로 해석하는 대표적인 인물은 머레이(D. F. Murray)이다(D. F. Murray, *Divine Prerogative and Royal Pretension*, 180-181).

34) 삼하 7:10b를 엄밀히 읽으면 성소가 심어지는 것이 아니라 백성이 심어진 것이다. 이는 출

- 10c 그리고 그는 떨지 않았다(미완료형) 그리고 불의의 아들들
(בְּנֵי־עוֹלָה)이 그를(괴롭히는 것을) 더하지 않았다(미완료형)³⁵⁾ 그
리고 사사들을 명령한 그 날로부터(7:11a)
- 7:11a 그리고 나는 너에게 안식을 주었다(단순 바브)
- 11b 그리고 나는 말한다(완료형) 목적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만들 것이다(미완료형)³⁶⁾

사무엘하 7:8b-11a에 걸쳐 단순 바브와 바브 연속법을 불규칙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만약 연속적으로 바브 연속법 구문만 사용되었다면 이 때의 MT 사무엘서 저자의 수사적 의도는 바브 연속법을 사용하여 앞의 상황에 대한 논리적 결과, 또는 시간적으로 먼저 일어난 일을 소개한 뒤 이어 일어나는 상황을 연속적으로 소개하는데 의미를 두었을 것이다. 하지만 사무엘하 7:9c의 내용은 10a절보다 먼저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10a절이 9c절에 대한 논리적 결과로서 기능하지 않는다. MT 사무엘서 저자는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행한 것들은 시간적 순서나 논리적 결과에 따라 서술하지 않는다. 다만 MT 사무엘서 저자의 수사적 의도는 여호와가 과

15장의 내용과 일치한다. 이와는 달리 맥카터는 성소를 강조한다. 미래에 지어질 성소가 심어지고 흔들리지 않을 것을 말한다(P. Kyle McCarter, *2 Samuel*, 202). 맥카터는 겔스톤(Gelston)의 입장을 수용한다(P. Kyle McCarter, *2 Samuel*, 203). 겔스톤은 마콴을 제의적 장소로 본다(A. Gelston, "A Note on II Samuel 7:10", *ZAW* 84 [1972], 93-94). 하지만 머레이는 10절에 소개된 동사는 항상 성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관련하여 사용되었다고 본다. 그래서 제의적 장소가 아니라, 안전하고 번영을 누리는 지리적인 장소로 이해한다(D. F. Murray, "MQWM and the Future of Israel in 2 Samuel VII 10", *VT* 40 [1990], 306). Omer Sergi, "The Composition of Nathan's Oracle to David (2 Samuel 7:1-17) as a Reflection of Royal Judahite Ideology", *JBL* 129 (2010), 277-278. 주 59도 참조하라. 삼하 7:10에 사용된 동사와 연결된 장소(place, מָקוֹם)라는 단어는 신명기적 מָקוֹם 용법과는 다르다(D. F. Murray, "MQWM and the Future of Israel in 2 Samuel VII 10", 310, 312, 313). 슈니드윈드는 이와는 달리 한 '장소'는 성전이 지어질 곳으로 이해한다(William M. Schniedewind, *Society and The Promise to David*, 36-37).

- 35) 삼하 7:10c에 사용된 두 개의 바브 연속법 구문은 과거의 습관적 상황을 묘사하기 위해 미완료형태로 사용하고 있다.
- 36) 슈니드윈드는 11하반절을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라고 번역하기보다는 "그(다윗의 아들)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여호와여"로 번역할 수 있다고 본다(William M. Schniedewind, *Society and The Promise to David*, 36). 한편, 랄프스(Alfred Ralphs)가 편집한 LXX 본문은 "네가 그를 위하여 집을 지을 것이다"라고 말하지만, 루키안 본문은 MT 본문과 유사하게 "그가 그 자신에게 집을 지을 것이다"로 소개한다(N. F. Marcos and J. R. Busto Saiz, *Biblia griega I*, 108; Alfred Ralphs, *Septuaginta*, 578; William M. Schniedewind, "Notes and Observations. Textual Criticism and Theological Interpretation: The Pro-Temple Tendency in the Greek Text of Samuel-Kings", *HTR* 87 [1994], 110).

거에 다윗에게 행한 것을 먼저 소개하고 이어 이스라엘에게 행한 것을 각각 소개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으므로 연속 바브 연속법 구문을 부분적으로 9a와 9b절에만 사용한다. 그러므로 다윗에게 일어난 일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일보다 결코 먼저 생긴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LXX의 읽기와는 달리 MT 사무엘하 7:8b-11a의 전체 구절은 이미 과거에 이루어진 사건들을 의미하는 것을 읽을 수 있다. 9a, 9b, 10c, 11a절을 제외하고 MT 사무엘하 7:8b-11a에 언급된 동사의 형태를 단순 바브(waw copulativum, waw-copula, waw copulative)로 읽을 것을 제안한다.³⁷⁾

위에서 정리한 내용에 따르면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에게 3가지 행위를 행했다(취했다, 함께 있었다, 만들었다). 한편, 여호와가 이스라엘에게 3가지를 행한다(정했다, 심었다, 거주했다).³⁸⁾ 하나님이 행하신 여섯 가지에 덧붙여 MT 사무엘서 저자는 여호와가 다윗에게 안식을 준 것으로 과거의 일을 마무리한다(삼하 7:11a).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과거에 행했던 것에 최종적으로 덧붙여 여호와는 이제 미래에 다윗의 집을 지으실 것을 말한다(삼하 7:11b). 여호와가 다윗을 위해(“너를 위해”) 미래에 행하실 것을 비로소 밝혀 사무엘하 7:1-16의 핵심 주제로 넘어간다.

여호와가 다윗에게 주는 미래의 약속은 11b절에 가서야 처음으로 언급된다. 그 약속의 내용은 여호와가 다윗을 위하여 견고한 집을 짓는 것이다. 여호와의 두 번째 말씀(8-16절) 말미에 다시 한번 더 다윗의 집을 보존할 것을 약속한다. 다윗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약속은 다윗과 그의 후손에게 모두 해당한다. 한편, 사무엘하 7:12-15는 다윗이 아니라 누구인지 그 이름을 명확히 밝히지는 않지만, 다윗의 후손에게 더욱 해당하는 약속이다.

그러므로 사무엘하 7:9b-11a는 다윗에게 미래에 주어질 약속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윗에 대한 여호와의 미래에 이루어진 약속을 말하는 구절은 11b절과 이를 좀 더 자세히 소개하는 16절이다. 사무엘하 7:12-15는 다윗의 후손

37) 추무라(David Toshio Tsumura)는 삼하 7:9b-11a를 필자의 의견과 유사하게 과거에 이미 행해진 사건들로 이해한다. 그는 이 부분을 가리켜 절차적 담화(procedural discourse)로 본다. 이 부분은 결국 여호와가 다윗과 그의 후손에게 행할 여호와의 미래의 일들로 이어지는 절차상 중간 부분에 해당한다(David Toshio Tsumura, “Tense and Aspect of Hebrew Verbs in 2 Samuel 7:8-16 - from the Point of View of Discourse Grammar”, *VT* 60 [2010], 644, 645-646, 647-649, 650-651); Leonhard Rost, *Succession to the Throne of David*, 44-45; Hans Wilhelm Hertzberg, *I & II Samuel*, 285; D. F. Murray, “*MQWM* and the Future of Israel in 2 Samuel VII 10”, 29 참조.

38) 삼하 7:10은 다윗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초점의 대상이 되므로 다윗의 초창기 사역보다 앞선 가나안 땅 정복 사건을 먼저 다룰 수 있다. D. F. Murray, “*MQWM* and the Future of Israel in 2 Samuel VII 10”, 298을 참조하라.

에게 주시는 약속을 말한다. 성전은 다윗에게 주어지는 약속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다윗의 후손에게는 다윗에게 주어지는 다윗의 집에 대한 약속에 덧붙여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집을 건축하겠다는 것이 그에게 해당하는 사항이다.

현재의 『개역개정』은 사무엘하 7:1b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모든 원수로부터 안식을 이미 주셨다는 사실을 명확히 드러내지 못할 뿐 아니라, 사무엘하 7:11a에서는 다윗에게 모든 원수로부터 안식을 미래에 줄 것이라고 말한다. 사무엘하 7:11a에 언급된 ‘내가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할 것’은, 이미 과거에 확정된 것이 아니라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받아들인다.³⁹⁾ 하지만, 위에서 전개한 논증에 따라 사무엘하 7:9b-11a를 과거로 읽는 독법을 받아들인다면 MT 사무엘하 7:1b와 7:11a는 서로 충돌하는 것으로 읽을 필요가 없게 된다. 여호와와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각 안식과 안전을 주셨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다윗을 위하여 견고하고 영원한 집을 지을 것을 약속하신다(삼하 7:11b).⁴⁰⁾

성전 건축은 안식의 시대가 된 이후에나 가능하고 다윗은 미래에 쉬게 될 것이라 주장하는 LXX와는 달리 MT 사무엘하 7장은 이 같은 주장을 지지하지 않는다. MT 사무엘하 7장은 성전을 짓지 못하는 이유를 밝히는 것에 관심이 없다. 우리가 MT 사무엘하 7장을 읽을 때 굳이 성전을 짓지 못하는 이유를 찾고자 한다면 원래 MT 사무엘하 7장이 강조하는 바를 놓치기 쉽다. 다윗의 집과 여호와의 집이 서로 대칭을 이루고 있지만,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하는 이유를 결코 말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MT 사무엘하 7장 본문은 다윗을 비난하지 않는다. 우리는 MT 사무엘하 7장을 읽을 때 안식이라는 주제가 성전 건축에 대한 다윗의 결격 사유가 될 수 없음을 말하고 있다고 인정해야 한다. 사무엘하 7:1b, 11a에서 명확히 밝히듯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미 안식을 주셨다. 다윗이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은 MT 사무엘하 7장에서는 해당하지 않는다. 다윗은 ‘안식의 사람’이 아니라는 굴레를 사무엘하 7장에 소개되는 다윗에게 뒤집어씌울 수는 없다. 사무엘하 7장은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못하는 결격 사유가 다윗에게 있다는 것을 절대 말하지 않는다. 사무엘하 7장은 다만 그의 후손이 여호와의 집을 짓게 될 것을 말할 뿐이다.

39) 세르기(Omer Sergi)는 11a절의 안식은 약속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미래에 주어질 상급으로 본다(Omer Sergi, “Composition of Nathan’s Oracle to David”, 260-270).

40) D. F. Murray, “MQWM and the Future of Israel in 2 Samuel VII 10”, 317을 참조하라.

5. 나오는 말

나단을 통해 여호와가 주신 첫 번째 말씀인 사무엘하 7:5-7 본문에서 한 곳에 고정된 형태의 성전 건축에 대한 주도권은 여호와께서 있음을 명확하게 밝히고 난 뒤, MT 사무엘서 저자는 8b-11a절에서 단순 바브와 바브 연속법을 불규칙적으로 사용한다. MT 사무엘서 저자의 수사적 의도는 각각 여호와가 다윗에게 행한 것을 먼저 소개하고 이어 이스라엘에게 행한 것을 소개하는 것이므로, 바브 연속법 구문을 부분적으로 9a와 9b절에만 사용한다. 본문은 시간적 순서나 논리적 결과에 따라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행한 것들은 서술하지 않는다. 여호와가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베푸신 은혜를 소개한 후 이어 미래에 다윗에게 다윗의 집을 세우실 것을 말한다(11b-16절). 이스라엘 왕정 이전 역사에서 이스라엘에게 평안함과 안전(security)을 주신 여호와는 다윗의 집이 영원히 지속적으로 견고할 것(permanence)을 약속하신다. 나단을 통해 주신 약속의 말씀인 안전과 지속성은 다윗에게 주신 약속의 양면에 해당한다.

사무엘하 7장은 두 개의 집, 즉 다윗의 집과 여호와의 집에 대한 약속이지만 여호와의 집을 짓게 될 자의 자격에 대해 결코 말하고 있지 않다. 사무엘하 7:1b와 11a절에 언급된 안식은 다윗이 현재 누리고 있는 안식과 미래에 누리게 안식으로 나누어 해석할 필요가 없다. MT 사무엘하 7장은 다윗이 안식을 누렸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고, 안식을 누리는 자만이 성전 건축을 하게 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MT 사무엘하 7장은 안식과 관련하여 결코 다윗에게 결격 사유가 있음을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지 않다.

다윗이 아닌 다윗의 아들이 성전을 건축하게 된다는 주제는 여호와의 두 번째 말씀 안에서 부차적인 주제이다. 핵심 주제는 여호와께서 주신 안식을 누리게 된 다윗을 위해 다윗의 집 즉 다윗 왕조를 견고히 세우실 것을 강조한다. 다윗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게 된다는 신탁(삼하 7:13a)은 5-7절에 겉으로 드러난 것과는 달리 성전 건축 자체를 거부하지 않고 도리어 확정되는데 기여한다. MT 사무엘하 7:1-16에 나타난 여호와가 다윗에게 준 약속의 핵심은 견고한 다윗의 집에 대한 것이다. 사무엘하 7장에서 언급된 여호와의 집은 영원히 견고한 다윗의 집을 뒷받침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결국 왕정 시대에 다윗 왕조가 이스라엘의 삶의 중심이 된다.

<주제어>(Keywords)

다윗, 안식, 나단, 성전, 약속.

David, rest, Nathan, temple, promise.

(투고 일자: 2020년 1월 30일, 심사 일자: 2020년 2월 21일, 게재 확정 일자: 2020년 4월 16일)

<참고문헌>(References)

- 강정주, “시편 132편과 다윗 언약”, 『개신논집』 6 (2006), 63-91.
- 김정훈, “칠십인경 사무엘-열왕기서의 본문 형태와 그 역사”, 『Canon & Culture』 5 (2009), 181-210.
- 김정훈, “마소라 본문 케티브/케레 전통의 본문비평적 성격 고찰-자음 중복과 중자 탈락, 유사 자음 차이의 보기를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43 (2018), 184-208.
- 김진수, “설교를 위한 구약 내러티브 본문 주해: 삼상 7:3-17; 삼하 7:1-29”, 『헤르메네이아 투데이』 51 (2011), 119-135.
- 소형근, “히브리어 ‘나기드’(נָגִיד) 번역에 대한 제언”, 『성경원문연구』 34 (2014), 289-293.
- 윤동녕, “신앗시리아의 왕을 위한 예언 연구”, 『Canon & Culture』 5 (2011), 187-215.
- 이궁재, “목자 제왕 이데올로기 연구를 통한 사무엘하 5:2하의 번역 제언”, 『성경원문연구』 43 (2018), 75-97.
- Avioz, Michael, *Nathan's Oracle (2 Samuel 7) and Its Interpreters*, Peter Lang: Bern, 2005.
- Brooke, A. E. and Mclean, N., *The Old Testament in Greek*,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17.
- Cross, F. M., *Canaanite Myth and Hebrew Epic: Essays in the History of the Religion of Israel*,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3.
- Edelman, Diana, *King Saul in the Historiography of Judah*,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1.
- Eslinger, Lyle, *House of God or House of David: The Rhetoric of 2 Samuel 7*,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4.
- Gelston, A., “A Note on II Samuel 7:10”, *ZAW* 84 (1972), 92-94.
- Gesenius, Wilhelm, *Gesenius' Hebrew Grammar*, Mineola: Dover Publications, 2006.
- Hertzberg, Hans Wilhelm, *I & II Samuel*,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4.
- Hurowitz, Victor, *I Have Built You an Exalted House: Temple Building in Light of Mesopotamian and Northwest Semitic Writings*,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2.
- Japhet, Sara, *I & II Chronicles: A Commentary*, Louisville: Westminster/John Knox Press, 1993.
- Jones, Gwinlym H., *The Nathan Narratives*,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0.
- Kapelrud, Arvid S., “Temple Building: A Task for Gods and Kings”, *Orientalia* 32

(1963), 56-62.

Kelly, Brian E., "David's Disqualification in 1 Chronicles 22.8: A Response to Piet B. Dirksen", *JSOT* 80 (1998), 53-61.

Marcos, N. F. and Busto Saiz, J. R., *El texto antioqueno de la Biblia griega I, 1-2 Samuel*, Madrid: CSIC, 1989.

McCarter, P. Kyle, *2 Samuel*, Garden City: Doubleday & Company, Inc., 1984.

McCarthy, Dennis J., "II Samuel 7 and the Structure of the Deuteronomic History", *JBL* 84 (1965), 131-138.

Mckenzie, Steven L., "The Typology of the Davidic Covenant", J. Andrew Dearman and M. Patrick Graham, eds., *The Land that I Will Show You: Essays on the History and Archaeology of the Ancient Near East in Honour of J. Maxwell Miller*,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2001, 152-178.

Mckenzie, Steven L., "Why Didn't David Build the Temple? The History of A Biblical Tradition", M. P. Graham, R. R. Marrs and S. L. McKenzie, eds., *Worship and the Hebrew Bible: Essays in Honor of John T. Willis*,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9, 204-224.

Murray, D. F., *Divine Prerogative and Royal Pretension: Pragmatics, Poetics and Polemics in a Narrative Sequence about David (2 Samuel 5.17-7.29)*,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8.

Murray, D. F., "MQWM and the Future of Israel in 2 Samuel VII 10", *VT* 40 (1990), 298-320.

Noth, Martin, *The Deuteronomistic History*, Sheffield: JSOT Press, 1981.

Ralphs, Alfred, *Septuaginta*,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1979.

Rost, Leonhard, *The Succession to the Throne of David*, Sheffield: Almond, 1982.

Schniedewind, William M., "Notes and Observations. Textual Criticism and Theological Interpretation: The Pro-Temple *Tendenz*. in the Greek Text of Samuel-Kings", *HTR* 87 (1994), 107-116.

Schniedewind, William M., *Society and The Promise to David: The Reception History of 2 Samuel 7:1-17*, New York;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Sergi, Omer, "The Composition of Nathan's Oracle to David (2 Samuel 7:1-17) as a Reflection of Royal Judahite Ideology", *JBL* 129 (2010), 261-279.

Throntveit, Mark. A., *When Kings Speak: Royal Speech and Royal Prayer in Chronicles*, Atlanta: Scholars Press, 1987.

Tov, Emanuel, *The Text-Critical Use of the Septuagint in Biblical Research*, Winona Lake: Eisenbrauns, 2015.

- Tsumura, David Toshio, *The First Book of Samuel*, Grand Rapids: Eerdmans, 2007.
- Tsumura, David Toshio, "Tense and Aspect of Hebrew Verbs in 2 Samuel 7:8-16 - from the Point of View of Discourse Grammar", *VT* 60 (2010), 641-654.
- Van Seters, John, *In Search of History: Historiography in the Ancient World and the Origins of Biblical History*, New Haven;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983.
- Waltke, Bruce K. and O'Connor, M., *An Introduction to Biblical Hebrew Syntax*, Winona Lake: Eisenbrauns, 1990.
- Weinfeld, M., *Deuteronomy and the Deuteronomistic School*, Oxford: Clarendon Press, 1972.

<Abstract>

**David's Rest and Yahweh's Promise for the Two Houses
in MT 2 Samuel 7:1-17**

Changyop Lee
(Anyang University)

2 Samuel 7:1 clearly states that David is the one who enjoys rest. Yahweh's Words given to David (2Sa 7:5b-7) emphasize Yahweh's initiative in the building project and the tabernacle as Yahweh's temporary dwelling place in the past. The author of MT Samuel irregularly uses waw copulative and waw conversive in 8b-11a. The author's rhetorical intent is only to use waw conversive partly in 9a and 9b. He intends to introduce what Yahweh did to David first, and then to Israel in the past. The author does not describe what Yahweh did to David and Israel according to temporal order or logical result. Therefore, MT 2 Samuel 7:1b and 11a do not seem to be in conflict with one another nor speak of David's present rest equally. MT 2 Samuel 7 clearly says that rest is not given to David in the future, but has been given to David (2Sa 7:1, 11a). In contrast to the text of 1 Kings 5:3-4 that David is not a man of rest, MT 2 Samuel 7 does not link David's rest with the building of Jerusalem temple as the precondition to be complied with.

Due to the presence of 2 Samuel 7:13a, the whole text of 2 Samuel 7 clearly shows that it is not Yahweh's intention to ban the temple building itself. 2 Samuel 7 does not search for the reason why David cannot build the Jerusalem temple. The concern of 2 Samuel 7 is not to deal with the qualifications of the temple builder, but to promise that Yahweh will build David's house. 2 Samuel 7 clearly states that David is not the one who builds the house of Yahweh, but rather tells that David's son is to do so. The focus of 2 Samuel 7 is on the construction of the house of David and the house of Yahweh respectively.